

“나이 드니 오디션 프로 보고도 울어요”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김윤석

최근 성희롱 발언 논란 ‘죄송’ 공식사과

중국 연변의 살인정부업자(황해), 연쇄살인범에게 “아, ‘4885’, 너지?”라고 외치던 전직 형사(‘추격자’), 악의 화신이자 전설의 타짜인 아귀(‘타짜’)까지.

그동안 주로 세고 거친 역할을 해온 충무로의 대표 배우 김윤석이 울겨울 멜로연기로 돌아왔다.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이하 ‘당신’)에서 김윤석은 사랑하는 여인을 잊지 못하고 30년간 가슴 속에 품고 사는 50대 수형역을 맡아 지고지순한 순정을 보여준다.

물론 김윤석의 멜로 연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영화 ‘썸씽’에서도 주인공 오근태의 40대 시절을 연기하며 김희애와 연기 호흡을 맞췄다. 다만 큰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다.

6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윤석은 “매번 도끼만 들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번 작품은 가슴전절이 적절하게 배치돼 있고, 타임슬립을 소재로 했지만,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 자기 자신을 만난다는 설정이 흥미로웠다”고 출연 이유를 말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10개의 알약을 얻게 된 2015년의 수형이 30년 전인 1985년으로 돌아가 평생 후회하던 한 사건을 바꾸려 한다는 판타지 드라마다.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뮈소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기욤 뮈소는 영화 ‘추격자’를 본 뒤 배우 김윤석의 팬이 됐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현재의 수형이 30년 전 수형과 만나 티격태격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설정에 공감이 갔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본인의 단점을 닮은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는 것처럼 그런 심경이라고 할까요. 우유부단하면서 때론 한 발짝 늦어 때를 놓치는 젊은 수형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인가가 화가 나는 거겠죠.”

중년일수록 멜로 감성을 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으나고 문자 대뜸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멜로감성이) 다시 생기죠. 저는 심지어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도 울어요. 전혀 의외의 친구들이 나와 음악적 기교가 아니라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나죠.”

김윤석은 그러면서 “도끼를 들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중년 남성을 보여주는 드라마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다”면서 “멜로 연기는 결국 진심을 다하는 게 최고”라며 웃었다.

‘당신’에서 시한부 삶을 사는 김윤석은 절제된 감정을 연기한다. 젊은 시절 수형을 연기한 변요한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요한이를 보면 자신을 다 열어놓고 즉흥에 몸을 던지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자주 그

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이도 한없이 감성적이다가 한 번씩 폭발하는 느낌으로 연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도둑들’, ‘검은 사제들’ 등으로 연기와 배우이자 흥행 배우로도 자리매김한 김윤석은 영화 흥행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어느 정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해보니까 이제는 흥행보다는 작품성이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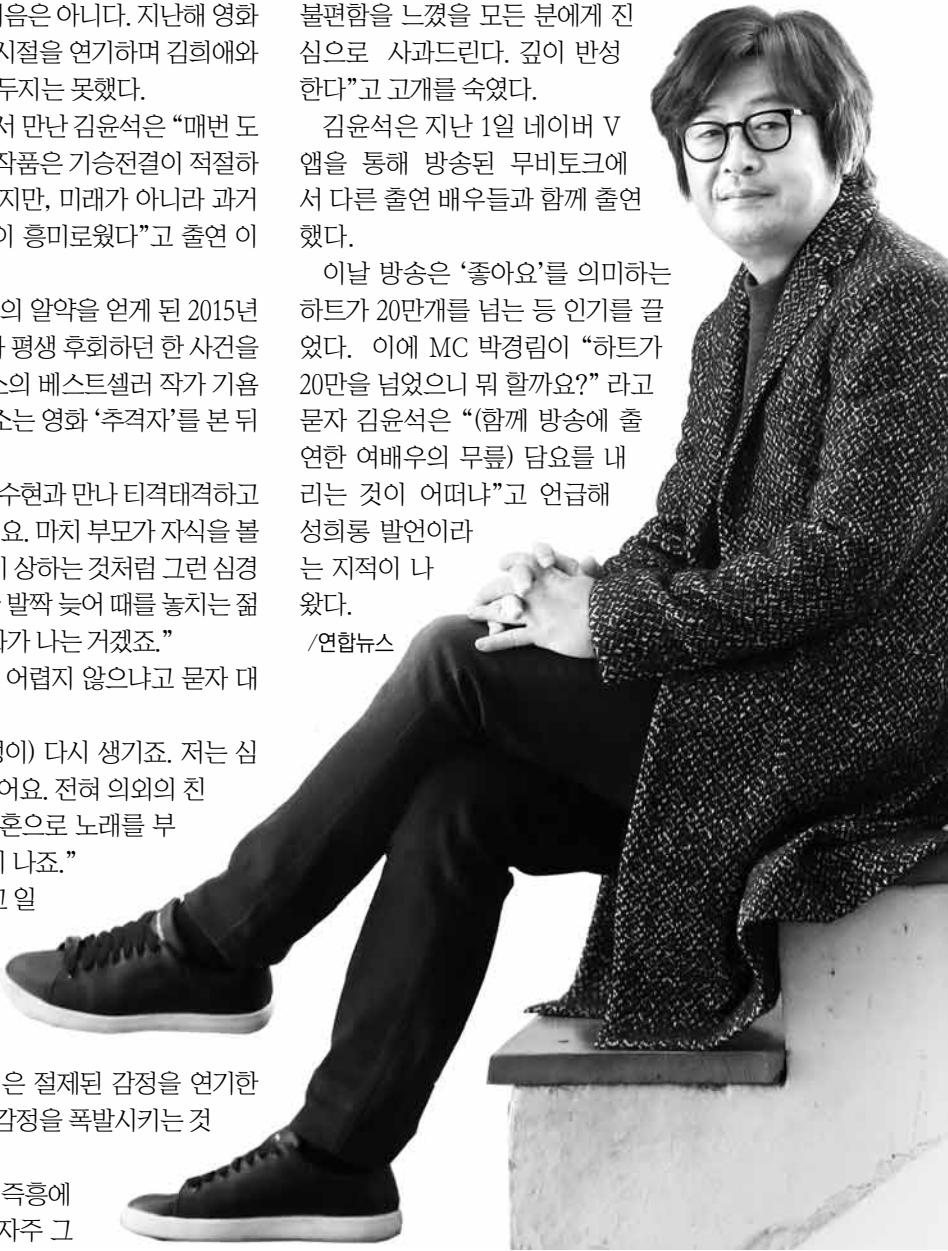
한편 김윤석은 지난 5일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시사화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김윤석은 “한 인터뷰 도중에 저의 경솔함과 미련한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며 “본노와 불편함을 느꼈을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윤석은 지난 1일 네이버 V 앱을 통해 방송된 무비토크에서 다른 출연 배우들과 함께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종아요’를 의미하는 하트가 20만개를 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에 MC 박경림이 “하트가 20만을 넘었으니 뭐 할까요?”라고 묻자 김윤석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의 무릎) 담요를 내리는 것이 어떨까”고 언급해 성희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드라마 ‘도깨비’ 시청자 홀리다

화제성지수 등 모든 콘텐츠 압도적 1위

김은숙 작가의 신작 ‘도깨비’에 쏠린 관심이 다른 모든 콘텐츠를 압도하고 있다.

6일 다음소프트의 방송 프로그램 화제성지수에 따르면 ‘도깨비’는 첫선을 보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연속 누리꾼의 관심을 평정했다. 각종 SNS 버즈량은 물론이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화제성지수 수치 자체가 타 프로그램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응답하라 1988’ 이후 처음으로, 실제로 ‘도깨비’의 첫회 시청률은 대히트작 ‘응답하라 1988’의 첫회 성적을 앞서며 tvN 드라마 첫회 시청률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도깨비’ 1회는 케이블, 위성, IPTV 통합 기준 가구 평균시청률 6.9%(닐슨 코리아/유료플랫폼 기준), 순간 최고 시청률 9.3%를 기록했다. 이는 ‘응답하라 1988’의 첫회 시청률 6.7%(순간 최고 8.6%)를 뛰어넘는 것이다.

‘도깨비’는 지난 2일 버즈량 2만1623, 화제성 지수 101.51을 기록하며 2위 ‘절전’을 가볍게 제친 데 이어, 2

회가 방송된 3일에는 버즈량이 2배 가량 뛰고, 화제성 지수 120.84를 기록하며 2위 ‘무한도전’보다 월등히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 4일에는 버즈량이 더 뛰어 5만192, 화제성 지수 121.34로 2위 ‘그것이 알고싶다’를, 5일에는 버즈량 1만 7342, 화제성 지수 100.01로 2위 ‘무한도전’을 역시 멀찌감치 앞서나갔다.

‘태양의 후예’의 김은숙 작가에 대한 신뢰에, ‘태양의 후예’의 이은복 PD가 구현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화면, 주인공을 맡은 공유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도깨비’는 초반 기선제압을 확실히 했다.

시공간의 초월하는 독특한 판타지와 ‘치즈인더트랩’에 이어 두번째 드라마에 도전하는 김고은의 밀리지 않는 연기력 등이 어우러지면서 방송 이후에도 강렬한 여운을 남기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앞서 남녀노소를 사로잡았던 ‘응답하라 1988’은 방송 기간 내내 거의 매일 방송 프로그램 화제성 지수 1위 행진을 이어가며 압도적인 화제성과 경쟁력을 과시했다.

/연합뉴스

“빅뱅 is back” 12일 완전체 앨범 발표

신곡 ‘에라 모르겠다’ 등 히트곡 수록

그룹 빅뱅이 내년 2월 탑의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 완전체 앨범을 발표한다.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뱅은 8년 만의 정규 앨범인 3집 ‘메이드 풀 앨범’(MADE FULL ALBUM)을 12일 선보인다.

앨범에는 신곡 ‘에라 모르겠다’ 등 더블 타이틀곡을 비롯해 지난해 4개월간 ‘메이드’ 시리즈로 발표한 ‘뱅뱅뱅’, ‘루저’, ‘배배’, ‘맨정신’,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절

어’ 등의 히트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에라 모르겠다’는 지드래곤과 YG 소속 프로듀서 테디의 공동 작품으로 탑도 작사에 참여했다.

YG는 내년 초부터 완전체 활동이 어려워진 만큼 앨범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단체 예능 출연이 적었던 빅뱅은 MBC TV ‘무한도전’과 ‘라디오스타’ 출연을 확정 지었고 26일 ‘SBS 가요대전’에서 특별 무대를 선보인다.

내년 1월 7~8일에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데뷔 10주년 투어의 대미 공연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봄날>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SBS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55 중계방송 최순실 국정조사 2차 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
11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재)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2016 SBS 물 환경대상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웍스특선 아름다운 중국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00 비타민(재)	20 리얼스토리 눈 50 텔레몬스터(재) 55 중계방송 최순실 국정조사 2차 청문회	
2	00 중계방송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4		00 여유만만(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아서 콩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코소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통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골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공감다큐. 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트릭 앤 트루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학교체육특집 꽃보다 농구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하말리아 새해맞이 천년의 기도, 중국 통린 문람제)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땃땃땃 유치원 1~2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타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위대란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새우장과 콜라비 홍시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코코몽3(재) 14:25 책과 땅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2) 15:45 레이디버그(재) 16:15 두디다롱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16:45 땃땃땃 유치원 1~2(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달라졌어요(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정열의 나라, 멕시코를 가다 3부> 21:30 한국기행 <뜨거워서 겨울 3부 불은 살아있다> 21:50 EBS 다큐 프리미엄 <감정시대-아저씨의 마음> 22:45 국한직업 <고단일 이종식 주택 제작>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시름을 잘 보기 위한 최고의 공부 장소는?> 24:1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여러 사람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는 영광이 따른다. 60년생 마음에 담고만 있지 말고 내비쳐야 의미가 있다. 72년생 상당한 자국을 받게 될 것이다. 84년생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우는 버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5, 57	午	42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전체적인 국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54년생 상호 간에 발전을 이룰 것이다. 66년생 조처 하지마자 절실히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78년생 속단은 금물이다. 행운의 숫자 : 69, 13
丑	49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61년생 일도장해나 변화무쌍하리라. 73년생 한 결같은 더 나아가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85년생 수고로움이 미래를 보장하게 되리니 마땅히 감수함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29, 14	未	43년생 어떠한 말에도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55년생 간단히 하라. 67년생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바가 많다. 79년생 생기를 따면서 발전적인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행운의 숫자 : 59, 55
寅	50년생 기본적인 취지에 충실해야만 무리가 없다. 62년생 비슷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천양지차이다. 74년생 지금 이대로 조음해 나간다면 완벽에 가까운 판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86년생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6, 01	申	44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해 왔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56년생 기존의 판세를 역류시킬만한 결정적인 타격책이 보인다. 68년생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80년생 말 못할 애로 사항이 있으니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28, 48
卯	51년생 망심하다가는 휘둘릴 수도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뒤라. 63년생 외부적인 요건까지 두루 갖추어야 할 때이다. 75년생 깨닫게 지위배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 87년생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2, 03	酉	45년생 머지않아서 의도하여 왔던 바가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질 것이다. 57년생 표현하지 말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더 낫다. 69년생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81년생 고비가 찾아오더라도 불굴의 끈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7, 54
辰	40년생 현실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자. 52년생 운기가 함께해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64년생 선후를 면밀히 살펴보고 안배를 해야겠다. 76년생 실제적인 관계여야만 의미가 있다. 88년생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드러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7, 22	戌	46년생 체계적인 정리가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58년생 주의를 다 하지 않으면 흉사가 벌어지겠다. 70년생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으나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82년생 사회적 통념을 벗어날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99, 35
巳	41년생 열린 마음으로 처세한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53년생 성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65년생 기본 체계를 중시하라. 77년생 우선 잘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다. 89년생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행운의 숫자 : 61, 96	亥	47년생 귀담이 들을 필요가 있다. 59년생 빈틈을 보이지 않음이 옳다. 71년생 여태까지 공력을 들이며 추구하여 왔던 바에 탄력이 붙게 되는 날이다. 83년생 미리 준비해 둔다면 머지않아 힘이 될 것이니 만전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 43, 0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